

붓다를 통해 배우는 친숙한 종교, 불교

## 소설로 읽는 붓다의 생애와 사상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까닭일까. 이젠 그곳에 발걸음을 끊은 지 오래이건만,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내 삶 곳곳에 남아 있다. 유년기 종교 교육은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기독교 같은 권위주의적 종교의 경우 자기 편 아닌 다른 모두를 '마귀사탄'으로 모는 독단적 사고방식을 어린 마음 한복판에 심어준 부작용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이래 지금까지 내 삶에서도 역시 그런 독단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했기에 하는 말이다.

글\_박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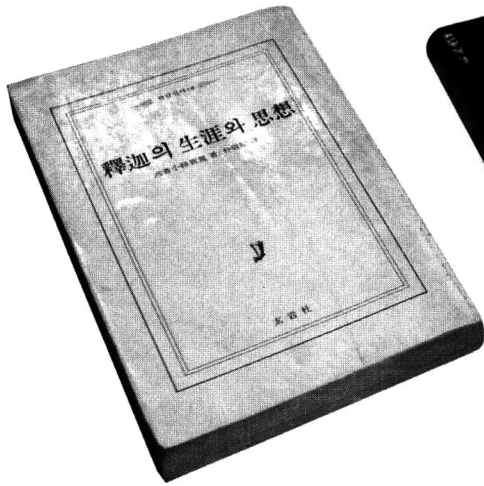
내가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정확히 말해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기로 결심한 뒤부터였다.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특정 종교나 이념을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살아온 사람의 경우, 그것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부터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가슴 한복판이 뺨 뚫린다는 표현은 지나친 과장이겠지만, 적어도 가슴 한복판에 오랜 세월 기르던 나무가 뿌리째 뽑힌 기분이긴 했다. 뭐라도 거기에 메워 넣어야 했다. 다른 나무건, 그냥 흙이건, 하다못해 물이라도 부어 못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때 제일 먼저 눈길을 들렸던 쪽이 바로 불교였다.

### 종교, 창시자의 생애에 관심을 갖다

물론 애초부터 마음먹고 절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 현대의 종교가 심증팔구 그렇듯 사찰 또한 세속화되고 구속적이긴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겼기 때문이다. 기껏 올라가 하나를 벗어나 또 다른 올라가 속으로 기어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차라리 불교가 무엇인지, 우선 그 경전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상책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완전 문외한인 일반인이 그 분야에 관한 적절한 개론서나 소개서를 골라내기는 쉽지 않다. 물론 각 교단이나 기관에서 만들어 낸 새신자용 입문서나 교리서는 있겠지만, 대개는 이미 그쪽에 발을 들여놓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나처럼 문간에서 기웃거리는, 그리고 가슴보다 머리가 앞선 사람에게는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불교에 대해서라면 지금 생각해도 가장 흥미로운, 아니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역시 그 경전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나로서 불교에도 기독교의 성경처럼 절대적 경전이나 궁극의 교리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다. 대표적인 경전만 해도 여러 가지였는데, 그 어느 것도 기독교의 성서처럼 절대적 권위를 지니진 못한 것 같아 보였다. 어디서는 《화엄경》이 최고다, 어디서는 《금강경》이 최고다, 어디서는 《법화경》이 최고다 하는데, 어찌 같은 불교이지만 강조하는 경전은 제각각인지 알쏭달쏭했다.

그러다가 문득, 종교라고 하면 일단 그 창시자의 생애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기독교는 신약성서 맨 처음이 예수의 족보를 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 불교도 우선은 부처인지 석가인지 싶다르



《석가의 생애와 사상》  
 무자소로실독 지음 | 박경훈 옮김  
 현암사(1963 초판, 1985 10쇄) | 값 4,000원

《붓다》  
 무사고지 사네이츠 지음 | 박경훈 옮김  
 현암사(1999 개정 초판) | 값 9,800원

타인지 뭔지 하는 사람의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과연 어딜 들여다봐야 그런 게 나올지는 알 수 없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불본행집경》이니 《붓다차리타》 같은 초기 경전이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불교 신도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다. 하물며 나 같은 초보자가 어찌 알았겠는가.

#### 인간의 실존적 고민과 그에 대한 답변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헌책방에서 만난 책이 바로 현암사에서 나온 《석가의 생애와 사상》이란 제목의 세로쓰기 문고판이었다. 일단 분량이 많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고, 어느 교단이나 사찰에서 만들어낸 포교용 책이 아니라서 안심이 되었으며, 제목부터가 '생애'와 '사상'을 소개한 다니 흥미가 생겼다. 한 가지 서운한 점은 이 책의 구판본에는 역사 약력은 있어도 저자 약력은 없었다는 거였다. 분명 일본 사람 같기는 한데 보통 너 자, 아니면 석 자나 다섯 자였던 이름이 무려 여섯 자였다. 뭐라고 읽는지도 몰라서, 한자음대로 '무자소로실독'이라고 외워버렸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 책을 통해 불교에 입문하게 된 것도 놀라운 인연이 아니었나 싶다. 책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붓다의 생애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매력적이었다. 기독교라는 전형적인 타력 신앙의 사고방식을 당연히 여기다가, 말 그대로 뼈를 쥐고 살을 내리는 고통을 이겨 가며 자력구제를 시도하는 붓다의 고집스러운 일면이 감동적이고 또 놀라웠다. 어쩌면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과 그 문제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기독교보다 훨씬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접근을 하는 것 같았다.

나중이야, 정말 한참 나중이야 비로소 이 책이 소설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훑어보니, 이걸 정말 제목이 좋아서 '생애와 사상'이지, 결국에는 '전기 소설'이었다. 그런데 어쩌서 막상 읽을 때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일까? 불교에 대

해 알고 싶다는 진지한 관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저자의 뛰어난 필력에 긴장을 늦추지 못한 까닭이었을까? 아니면 어쩌고 생애와 사상에 대해 소개되는 책이니 소설이든 화곡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탓일까?

#### 불교에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고마운 책

나는 아직도 불교 신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불교는 종교 이전의 불교, 즉 원시불교의 철학 사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승불교니 선불교니 하는 후대의 전통이 강제인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 그리고 오늘날 기성 종교로 굳어진 불교나 사찰에 대해서는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은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성서에 묘사된 예수의 '생애'와 '사상'에는 매력을 느끼는 한편,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에는 실망감과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의 생애야 성서에도 나와 있고 전기나 개론서도 많지만, 혹시 불교나 다른 종교나 무신론에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나 역시 선뜻 대답을 못할 것 같다. 책이야 많지만, 아니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만 과연 그 사람에게게는 무엇이 좋을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다만 불교의 경우에는 무자소로실독의 《석가의 생애와 사상》, 아니 그 개정판인 무사고지 사네이츠의 《붓다》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걸 소설로 보건 소설이 아닌 걸로 보건 간에, 내 경우에 있어서는 '마귀사탄'의 종교로만 알고 있던 불교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고마운 책이었기 때문이다. ■

박중서님은 에이전시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 《젠틀 매드니스》(공역)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등이 있다.